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'11년 12월 2일(금)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최규종 전력진흥과장(2110-4660), 이재석 사무관(2110-4661)	

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5일 전기요금 4.5% 인상

◇ **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, 주택용·전통시장용·농사용 요금 동결**

◇ **산업용·일반용 고압 등 전력 다소비 부문 중심으로 요금 조정**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.5% 인상하기로 결정함

○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였음

- 전력수급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계비상수급기간('11.12.5~'12.2.29)이 시작되는 12월 5일자로 요금을 조정하기로 함

* 예비전력이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, 1월 2~3주는 100만kW 이하로 예측

○ 그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, '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였음

○ 이에 따라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

* 전력증가율(05~10년) : 한국(30.6%) 일본(△1.9%) 영국(△5.1%) 프랑스(5.6%) 미국(1.7%)

1. 전기 요금 수준 조정

□ 전기요금은 12월 5일자로 평균 4.5% 인상함

○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87%* 수준에 불과하지만,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겨울철 전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, 동계 피크시간대 요금 등 중심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함

* 지난 8월 1일 요금조정 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.3% 수준이였으나, LNG, 석탄,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추가 상승하여 원가회수율이 하락

□ 전기요금 종별로 차등 요금 조정을 시행하기로 함

○ 서민부담,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, 전통시장용,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,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·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함

○ **(주택용, 전통시장용*)** 서민, 영세상인 등을 고려하여 동결함

* '11. 8. 1일부터 전통시장 구역내 일반용 저압 소비자에 할인 혜택 제공중

○ **(농사용)**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함

○ **(산업용, 일반용)**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, 대형공장·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중폭 조정하고,

- 중소공장·상점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소폭 조정함

○ **(교육용, 가로등)**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교육용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, 가로등은 중폭 조정

구 분		주택	일반			산업			교육	농사용	가로등	평균
			저압	고압	계	저압	고압	계				
인상률(%)		-	3.9	5.0	4.5	3.9	6.6	6.5	4.5	-	6.5	4.5
원가회수율(%)	전	86.4	86.9	94.6	90.8	78.4	89.3	88.7	83.9	32.8	78.3	87.0
	후	86.4	90.3	99.3	94.9	81.4	95.2	94.4	87.7	32.8	83.4	90.9

2. 전기 요금 체계 조정

가.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

□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함

* 전력용량 300kW이상 소비자는 국내 전체 전력의 61% 이상을 소비

□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,000kW 이상 1만3천호 → 300kW 이상 11만1천호로 대폭 확대함

○ 금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*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,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이후에 '12. 1. 1일 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임

* '12.1월 신규적용대상 : 일반용·산업용 300~1,000kW, 교육용 1,000kW이상

○ 다만,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(300kW 이상), 교육용(300~1,000kW)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

* 피크요금제 :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(피크시간), 중간부하, 경부하로 구분하여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
* 겨울철 피크시간대 10~12시, 17~20시, 22~23시

□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고, 특히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을 높게 조정하여 피크시간대 전력 부하를 여타 시간대로 이전을 유도하기로 함

계절별 구분	하계	춘추계	동계
조정률	4.1% ↑	4.4% ↑	8.5% ↑

* 조정률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일반용, 교육용, 산업용의 평균

나. 산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

□ 금번 요금 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동계수급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하여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

○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%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임

○ 인센티브 요금은 금번 동계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향후 부하 이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

다. 기타

□ 수도권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IDC(집적정보통신시설)가 집중 설치될 경우 수도권 전력부하 밀집도가 급증하여 추가로 송배전망을 건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

* IDC 현황 : 수도권(34개), 비수도권(13개)

○ 수도권 소재 IDC는 현재 적용중인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('12.1.1일 시행)

*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은 '08.1월부터 시행중이며, 일반용 대비 3% 저렴

3. 전기 요금 조정 효과

□ 지식경제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.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□ 금번 요금 조정시 서민 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요금을 동결하였으므로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, 생산자 물가 0.116%p 상승, 제조업체의 원가는 0.076%p 상승함

* 산업용, 일반용, 주택용 전기요금을 각각 1% 인상시 생산자물가 연간 0.0274%p상승(한국은행)
* 제조업 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.17%(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, '10년)

4. 향후계획

□ 지경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"지식경제부와 한전,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,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"라고 말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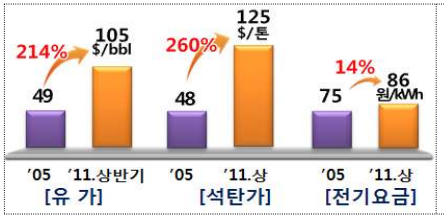
□ 지식경제부는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

참고1 전기요금조정 필요성

□ **(요금수준)**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달하여 전력 과소비 현상 심화

○ 전기는 석탄, 유류, LNG 등을 연소하여 생산하는 고급에너지로서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 우려로 요금인상을 억제

< 에너지 가격 변동 >



< 원가회수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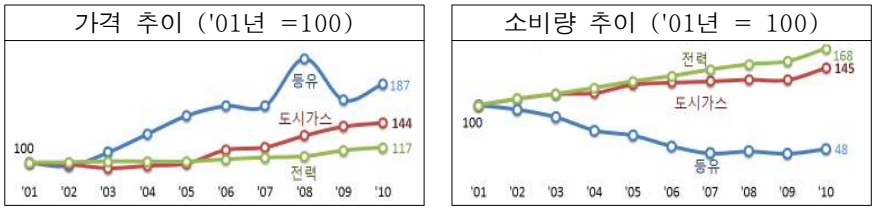
□ **(전력소비)**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 최고수준

* 증가율(05~10년) : 한국(30.6%) 일본(△1.9%) 영국(△5.1%) 프랑스(5.6%) 미국(1.7%)

○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에 비해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여 석유류 소비가 전력 소비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

* 유류 등을 전력으로 전환시 열손실 60%, 대부분 국가에서 석유 대비 전력가격 비쌈

< 에너지원간 가격 및 소비량 변화 >



* 전력소비대체사례 : 주물공장 동력 석유 → 전기, 농가 하우스난방 석유 → 전기

○ 특히 '09년 이후 겨울철에 전기 난방 사용 확대로 전력소비 급증

* 동계에 난방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의 25%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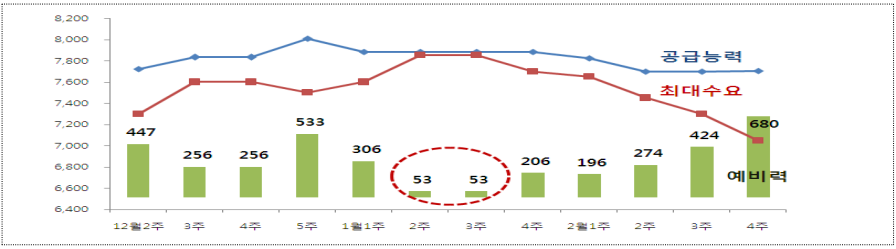
□ **(전력수급)**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해 국가적 전력 부족 초래

○ 전력수요는 매년 500만kW(원자력 발전 5기 상당)씩 급증하나 발전소 건설에 장기간(LNG 5년, 석탄 7년, 원전 10년)이 소요되어 공급능력은 이에 따라가기 어려움

○ 전력부족은 '13년까지 지속되며 금년 겨울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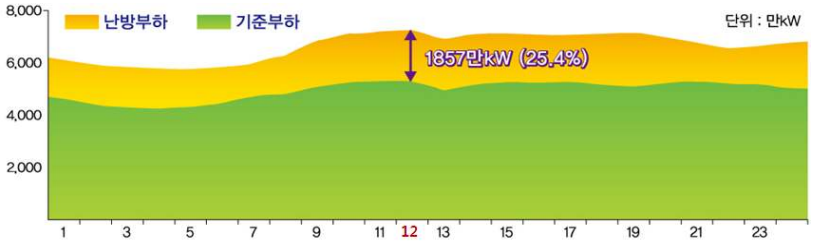
* 예비전력이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, 1월 2~3주는 100만kW 이하로 예측
  – 예비전력은 공급능력과 최대수요의 차이로 400만kW이하시 위기단계에 해당

<금년도 동계 전력수급 전망>



참고2 난방부하 증가

□ 동계피크시 난방부하 비중은 25.4% 수준



* 기준 부하 : 냉난방 수요가 전혀 없는 전력 사용량

□ 최근 들어 난방부하 비중이 급증

구 분	'06	'07	'08	'09	'10	연평균 증가율
기준부하 (비 중)	4,454만 (80.2%)	4,754만 (78.0%)	4,849만 (77.4%)	5,221만 (75.7%)	5,457만 **(74.6%)**	5.2%
난방부하 (비 중)	1,097만 (19.8%)	1,341만 (22.0%)	1,416만 (22.6%)	1,675만 (24.3%)	1,857만 **(25.4%)**	14.2%
계	5,551만	6,095만	6,265만	6,896만	7,314만	7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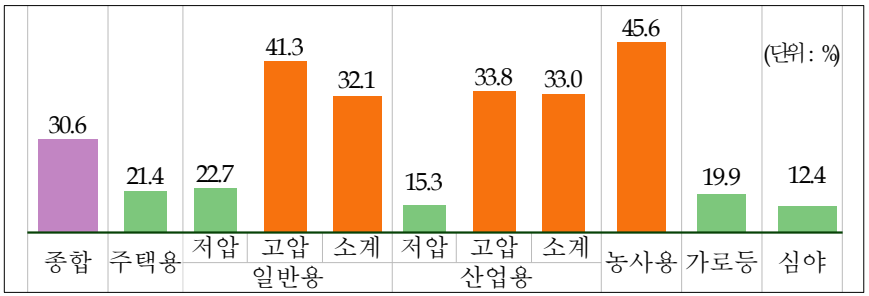
참고3 전기요금 용도별 현황

□ 전기요금 용도별 호수, 판매량 현황

구 분	주택용	일반용		산업용		교육용	농사용	가로등
		저압	고압	저압	고압			
호수(호)	1,290만	251만	12만	25만	10만	3만	120만	112만
전력판매량 비중('10년)	14.6%	10.3%	12.1%	2.1%	51.5%	1.7%	2.5%	0.7%
소비증가율 ('05~'10년)	21.4%	22.7%	41.3%	15.3%	33.8%	72.9%	45.6%	19.9%
비 고	주택 아파트	서비스(유통, 금융 등)		광업, 제조업		학교 도서관	농어업 축산	가로등 보안등

* 원가회수율 : 종합 87.0%, 심야전력 68.9%(소비증가 12.4%↑)

□ 용도별 전력소비 증가율('05~'10년)



* 교육용 증가율은 72.9%('05년에 영유아보육시설 등 적용대상 대폭 확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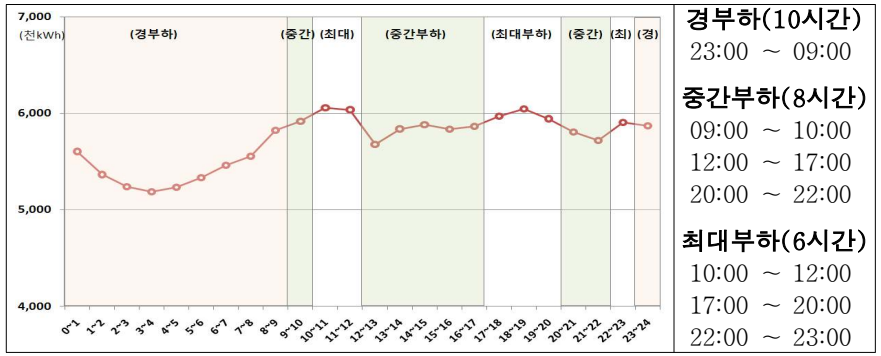
참고4 피크요금제(계시별 차등 요금제)

□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(피크시간), 중간부하, 경부하로 구분하여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

□ 피크요금제 예시(일반용 을 고압A 선택 Ⅰ)

기본요금(원/kW)	전력량요금 (원/kWh)			
	시간대	여름철 (7~8월)	봄가을철 (3~6,9~10월)	겨울철 (11~2월)
6,470	경부하	52.60	52.60	56.70
	중간부하	100.40	68.20	98.70
	최대부하	172.90	91.30	142.00

□ 겨울철 일 전력부하 패턴 및 시간대 구분



경부하(10시간)
23:00 ~ 09:00

중간부하(8시간)
09:00 ~ 10:00
12:00 ~ 17:00
20:00 ~ 22:00

최대부하(6시간)
10:00 ~ 12:00
17:00 ~ 20:00
22:00 ~ 23:00

□ 전력수요 이전 효과

